

原油先物去來 개시한 시카고, 뉴욕商品去來所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지 난 3月 20日 美國의 시카고商品去來所와 뉴욕商品去來所에서 史上 처음으로 原油의 先物去來¹⁾가 시작되었다.

兩大商品去來所의 原油先物去來는, 여기서 形成된 原油의 價格이 지금까지 國際原油價格의 基準이 되어 온 사우디產 輕質油의 價格을 대신하여 새로운 基準油價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開聯業界의 비상한 關心을 모으고 있다.

많은 先物去來專門家들은 原油가 先物去來의 對象이 될 수 있는 좋은 條件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原油先物去來도 이미 盛行중인 非鐵金屬이나 穀物의 先物去來 못지 않게 중요한 先物去來의 하나로 定着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성공여부를 좌우할 大石油會社들의 참여가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 最長18個月까지 先物去來 可能

美國內의 商品先物去來에 대한 統制權을 가지고 있는 商品先物去來委員會(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시카고商品去來所(CBT; Chicago Board of Trade)와 뉴욕商品去來所

(NYMEX; New York Mercantile Exchange)에 처음으로 허용해 준 原油先物去來의 主要內容을 보면, ① 最小去來單位는 1,000배럴이고, ② 最長 18個月까지의 先物去來가 가능하며, ③ 基準油種을 시카고商品去來所의 경우는 루이지애나產 高級輕質油로 하고, 뉴욕商品去來所의 경우는 西部텍사스產 中質油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商品先物去來委員會는 美國外部에서 生産된 原油라도 油質이 비슷하지만 하면 基準油種을 대신하여 引渡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美國外部에서 生産된 原油도 美國內의 原油先物市場에서 去來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카고 商品去來所와 뉴욕商品去來所는 國際的인 原油先物市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OPEC의 油價決定力弱화가 背景

이와 같이 商品先物去來委員會가 兩大商品去來所에 原油의 先物去來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이유는, ① 世界石油需給 및 價格에 대한 OPEC(石油輸出國機構)와 石油메이저들의 영향력이 크게 弱화되어 先物市場을 통한 原油去來가 이루어 질 수 있는 素地가 커졌고²⁾, ② 長期

註: 1) 先物去來란 先物去來所(Futures Exchange)에서 特定品目을 一定時期(限月)를 引渡期日로 하여 売買하였다가 限月內에 이를 引渡 또는 清算去來(反對売買)를 통하여 契約을 종결시킴으로써 清算差額을 現物價格의 變動에서 오는 損益을 補填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價格保檢的 機能을 가지는 去來를 말한다.

註: 2) 原油를 先物市場에 上場시키려는 시도는 15年前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당시에는 OPEC와 石油메이저들이 世界石油市場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原油先物去來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供給契約을 통한 原油去來의 比重이 줄어들는 반면, 現物市場을 통한 原油去來의 比重이 크게 늘어났으며, ③ 急激한 油價變動에 따른 危險을 回避하기 위한 先物去來의 必要性이 增大되어, 原油의 先物去來가 성공할 수 있는 與件이 갖추어 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原油의 現物市場을 통해 3~4 個月 정도의 先物去來가 非公式的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도 原油의 先物去來가 商品去來所를 통해서 公式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극한 요인이 된 것 같다.

3. 새로운 國際油價의 基準이 될 수도

시카고商品去來所와 뉴욕商品去來所의 原油先物去來가 많은 專門家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이 두 去來所에서 형성된 原油價格이 지금까지 國際原油價格의 基準이 되어 온 사우디產 輕質油의 價格을 대신하여 새로운 基準油價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國際石油價格 決定權이 OPEC에서 原油先物市場으로 移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英國, 이집트 등 非OPEC產油國들은 石油消費國들과 供給契約을 맺을 때, 契約價格을 決定하는 기준의 하나로 現物市場의 原油價格을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PEC會員國인 에콰도르도 지난 2월에 自國의 原油輸出價格을 OPEC의 油價構造에 얽매이지 않고, 國際石油市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公示價의 決定基準으로 現物油價를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現物市場이란 公式的인 去來場所도 없고 일정한 規定도 없이 去來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現物油價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그 信賴度도 떨어진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先物去來가 定着되면 原油先物市場에서 형성된 價格이 國際石油價格의 基準으로 作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群小石油會社들은 환영하는 입장

한편 原油先物去來에 대한 關聯業界의 意見은 当事者들의 利害關係에 따라 환영하는 측과 별로 달갑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측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먼저 지금까지 大石油會社들의 囑咐에 시달려 온 群小石油會社나 精油會社들은 原油先物去來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① 현재와 같이 大石油會社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價格을 받아들이는 대신 先物市場에서 需給事情을 반영하여 결정된 合理的인 價格으로 原油를 去來할 수 있고, ② 價格急變에 따른 危險을 回避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精油會社들은 이미 盛行중인 石油類製品의 先物去來³⁾를 原油先物去來와 함께 이용할 경우 장래의 利益을 정확하게 算定할 수 있다는 또 다른 利點을 누릴 수 있다. 즉 原油先物市場에서 原油先物을 購入하여 장래의 生産原油를 固定시켜 놓고 石油類製品의 先物市場에서 生産할 石油類製品을 先物로 販賣하여 장래의 取入을 確保함으로써 장래의 純利益을 정확히 算定할 수 있는 것이다.

5. 大石油會社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

이에 반해 國際石油資本을 비롯한 大石油會社들은 原油先物市場이 제대로 機能하게 될 경우 世界石油價格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原油先物去來를 달갑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商品先物去來委員會가 原油先物去來의 最小去來單位를 1,000배럴로 대단히 적은 水準으로 결정한 이유도 이러한 大石油會社들의 拒否反應을 예상하고 當分간은 群小石油會社나 精油會社, 商品去來商 및 投機家들이 原油先物去來의 中心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6. 原油先物去來, 성공할 가능성 커

註: 3) 石油類製品의 先物去來는 1978年 뉴욕商品去來所(NYMEX)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런던의 國際石油去來所(International Petroleum Exchange) 등으로 파급되어 현재 크게 盛行되고 있다. 主要 上場品目은 휘발유, 輕油, 燃料油등이다. (자세한 內容은 本報 第80號「石油類製品 先物去來 擴大추세」참조)

(表-1) 原油先物去來의 主要內容(案)

| | 시카고商品去來所 | 뉴욕商品去來所 |
|---------|---|---------------------------------|
| 代表油種 | 루이지애나産高級輕質油 | 西部의 사스産中質油 |
| 去來可能한油質 | | |
| 比 重 | 35API ¹⁾ 이상 | 35~45API* |
| 硫黃含有 | 0.5%이하 | 0.5% 이하 |
| 原 産 地 | 남부루이지애나 LOOP Segregation ²⁾ 7種의 海外原油 ³⁾ | 制限 없음 |
| 基準油質 | 比重35API*/硫黃含有 0.5% | 比重35API*/硫黃含有 0.5% |
| 價格調整 | | |
| 比 重 | 35~40API* 내에서 海1* 마다 배럴당 2¢ | 35~40API* 내에서 海1* 마 다 배럴당 2¢ |
| 硫黃含有 | 調整 없음 | 0.5%이하 每0.1%마다 배 럴당 3¢ |
| 代表油種의價格 | 基準油質의 價格+6¢/배럴 | 基準油質의 價格+13¢/배럴 |
| 最小去來單位 | 1,000배럴 | 1,000배럴 |
| 現物引渡場所 | 루이지애나州 St. James | 오클라호마州 Cushing |

(資料) Petroleum & Energy Intelligence Weekly, Inc.,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Sep. 27, 1982

註: 1) 美國石油協會(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가
정한 原油의 比重을 나타내는 수치로 그 계산방법은

$$API^* = \frac{141.5}{60^{\circ}F에서의比重} - 131.5$$

- 2) 38API*/0.25%이하의 海外原油를 저장한 루이지애
나沿岸 石油貯藏所.
3) 나이지리아産 Bonny油, Brass River油, Qua Iboe
油, Escravos油; 노르웨이産 Ekofisk油; 알제리産
Saharan Blend油, Zarzaitine油.

일부 專門家들은 原油先物去來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大石
油会社들이 原油先物去來에 대해 이와 같이 懷
疑的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原油先物去來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先物去來專門家들은 비록 상
당한 時日이 要求되겠지만 OPEC會員國이나 大
石油会社들도 결국에는 原油先物市場에 참여하
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
유는 OPEC會員國들과 大石油会社들이 世界石
油需給 및 價格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
들고 油價도 계속 큰 幅으로 變動함에 따라 原
油先物市場에 참여할 필요성을 보다 절실히 느
끼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原油는 交易量이 많고 價格變動
幅이 크며 이에 따라 先物去來의 潤滑油로 불리
는 投機資金의 流入可能性도 크기 때문에, 原油
先物去來가 이미 盛行중인 非鉄金屬, 穀物 등의
先物去來 못지 않게 중요한 先物去來의 하나로
定着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石油協會報」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誌面을 최대한 割愛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이나 자료는
本誌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주는 소중한 유
고가 될 것입니다.

●종 류

석유에 관련된 정보 및 논문, 제언, 회원
사소식 및 사진등,

●원고매수

8매안팎. 연구논문이나 제언등은 길어도
좋습니다.

●원 고 료

채택된 원고는 本誌 所定의 원고료를 드립
니다.

●마 감

매달 5일을 원칙으로 하나 수시로 접수 합
니다.

●기 타

필자사진을 비롯한 원고내용과 관계되는
사진도 동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원고에는 회사, 부서, 직책 및 연락
처(전화번호)등을 기록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보 낼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0(삼일로빌딩
22층) 대한석유협회 「石油協會報」 편집실.
(전화: 723-7127)